

〈디지털 전환〉

카드사, DX의 ‘그림자’ 10명 중 1명 ‘비정규직’

상반기 카드사 근로자 1만1324명 정규직은 87.4% 비정규직 12.6% 디지털 전환에 고용부담 불안정

현대, 비정규직 비중 29.4% 최고 정규직 비중 최고는 국민 98.6%

신용카드사 직원 10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는 총 1만1324명이다.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9900명(87.4%), 비정규직 근로자는 1424명(12.6%)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카드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직원 2016명 중 593명(29.4%)이 비정규직이다. 직원 3~4명 중 한 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현대카드는 매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 최근 3년간 현대카드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2021년 534명(26.4%) ▲2022년 575명(28.7%) ▲2023년 상반기 593명(29.4%) 순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카드 다음으로 비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은 곳은 롯데카드다. 올 상반기 기준 롯데카드의 비정규직 직원은 251명으로 전체 직원(1524명)의 16.4%를 차지했다. 카드업계 평균인 12.6%보다 3.5%포인트(p) 높은 수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면서 “기획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은 정규직 중심으로, 사무 보조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 또한 비정규직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하나카드의 정규직 근로자는 667명으로 지난 2021년(708명) 대비 41명 줄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65명으로 13명 증가했다.

삼성카드는 매년 비정규직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삼성카드의 비정규직 직원의 수는 266명이었지만 지난해 226명, 올해 상반기 215명까



지 줄었다. 반면 정규직 직원의 수는 ▲2021년(1757명) ▲2022년(1775명) ▲2023년 상반기(1792명) 순으로 매년 증가했다.

업계에서 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카드다. KB국민카드의 정규직 직원은 1524명으로 전체 직원(1546명)의 98.6%를 차지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직원은 22명(1.4%)에 그쳤다.

한 카드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카드업계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이 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정 등 개발 업무에 파견직 인력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 정규직 직원을 고용해 전문성을 높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카드업계 비정규직은 개발 및 관리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실력있는 개발자의 경우 IT기업 및 스타트업 등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비정규직원 비중이 높을수록 숙련도와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파견업체 소속으로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고용 부문에서 불안정한 부분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신한금융 그룹 공동 ‘소비자 보호’ 캠페인

신한금융그룹이 이달부터 두달간 소비자보호를 위한 그룹 공동 캠페인 ‘신한과 함께 하세요’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과 함께 하세요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예방(지켜요) ▲숨은금융자산 찾아주기(찾아요)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강화(막아요)로 구성된다.

신한금융은 보이스피싱 예방(지켜요)을 위해 영업점·인터넷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대

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보이스피싱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숨은금융자산 찾아주기(찾아요)를 위해 은행은 휴면예금, 카드사는 미사용포인트, 보험사는 미수령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신한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강화(막아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2주년 맞이 강화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권리를 알릴 목적으로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나유리 기자 yul15@

4%대 예금상품 등장... 은행 12조 ‘뭉치돈’

예적금 만기에 고금리로 자금확보 시중은행 예금 한 달 새 12조 늘어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낮지만 자동이체만 걸어도 5%를 주는 예적금 상품이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이다.”

최근 4%를 넘는 예금 상품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 잔액이 한달 새 10조원 넘게 몰렸다. 특히 예금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금융소비자들이 ‘안전자산’에 쏠리는 분위기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기예금(만기 12개월) 36개 상품 가운데 5개가 최고 4%대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금리가 3.5% 이상인 상품도 31개였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우리SUPER주거래적금’ 4.65% ▲KB국민은행 ‘KB반려행복적금’ 4.5% ▲NH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적금’ 4.3% ▲신한은행 ‘신한알·쓸 적금’ 4.3% 등이 4%대를 넘어서었다.

지방은행별로는 ▲DGB대구은행의 ‘DGB함께예금’(4.05%) ▲BNK부산은행 ‘더 특관 정기예금’(4.0%) ▲DGB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4.0%) 등이 4%대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BNK부산은행이 지난 7월 초 출시한 ‘너만Solo적금’은 기본금리 2.4%에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8.9%의 금리를 준다. 이외에도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최고 연 4.1% 금리를 제공하며 Sh수협은행의



서울 용산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ATM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뉴스IS

‘첫만남우대예금’이 4.02%의 금리를 준다.

이자율이 오르는 이유는 지난해 말에 몰린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자, 은행권이 고금리 상품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오른 것도 이자를 끌어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긴축할 것이란 전망에 지난해 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35%를 돌파했다. 미국채 영향을 받는 국내 은행채도 동반 상승한 것.

이처럼 최고 금리가 4%를 넘는 예금 상품이 재등장하면서 은행권의 수신고는 한달 간 12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44조 9671억원으로 한 달간 11조 9859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은 두달 연속 10조원이 넘어서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4444억원을 시작으로 ▲5월 11조 8088억원 ▲6월 4조 6827억원 ▲7월 10조 7070억원 ▲8월 11조

9860억원이 들어왔다.

적금도 증가세다. 지난해 말 정기예금 잔액은 42조 2814억원으로 1조 294억원 늘었다. 지난 4월 8970억원 늘어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예금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은행권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에서도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지난 4월(3.51%) 이후 ▲5월 3.59% ▲6월 3.76% ▲7월 3.81% 등 오르고 있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고금리 특판 등의 과잉 경쟁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부터 금융권 상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은행권에 과잉 경쟁을 자제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강화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보험사 대출도 들쭉... 가계대출 2분기에만 7000억 증가

급전 마련 보험계약대출 늘어 가계대출 연체율 0.03%p ↑

올해 2분기 보험사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서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찾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신용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은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이 늘었다. 가계대출은 133조 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무

려 4조 2000억원이나 늘었다.

보험계약대출이 68조 9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7000억원이 늘었다. 전년 동기 말 대비로는 증가폭이 3조 2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신용대출은 7조 8000억원으로 2분기에 2000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1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은 139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6000억원 줄었다. 대기업대출이 7000억원 감소했고, 중소기업대출은 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도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0%로 전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대출이 0.22%로 0.02%p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은 0.46%로 0.03%p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부실채권비율은 0.43%로 전분기 말 대비 0.15%p 상승했다. 부실채권비율은 가계대출 0.35%, 기업대출 0.47%로 각각 0.01%p, 0.21%p 높아졌다.

금융원은 “금리상승 등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부실자산의 경우 조기 클린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임종룡, 1만주 장내 매수... 기업가치 제고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사진)이 우리금융지주주식 1만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6일 밝혔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 3월 그룹 CEO로 취임한 후 영업 전열을 재정비하고 기업문화 혁신에 힘쓰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다.

그간 ▲우리금융지주자기주식 매입 ▲우리금융·우리벤처파트너스 완전자

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 교환 등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시장 불안감으로 우리금융 주가가 담보 상태에 머무르자, 임종룡 회장은 CEO로서 책임경영과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전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우리금융그룹 주요 자회사 CEO 및



임원들 역시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여 임종룡 회장의 책임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 뜻을 함께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종룡 회장의 첫 자사주 매입을 계기로 시장 및 주주들과 소통에 박차를 가하면서,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tm